

人文論叢

83권 1호

2026년 2월

기획 논문

기획의 말

/

한국고대사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몸부림

한국고대사 연구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역사 연구자, 혹은 역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시민들의 눈에 고대사 연구자들의 작업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다. 적게는 4~5자, 많아야 10자 남짓한 목간의 문자를 가지고 수십 편의 논문을 생산하고, 광개토태왕비 하나를 소재로 수백 권의 단행본이 출간되고, 때로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수십 년째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경외스럽고 한편으로는 한심해 보일 것이다. 역사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이 빛의 속도로 다양해지고 발전하는 현실에서, 현재의 삶과 별로 관련도 없어 보이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고대사 연구자들은 종종 자조적으로 “고대사는 한줌도 안 되는 사료랑 씨름하는 것이 숙명이라 사료를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데쳐 먹는다.”거나 “물수건을 짜고 짜서 마른 행주가 될 때까지 사료를 우려먹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곤 한다.

이런 푸념 내지 변명은 절반은 참이고 절반은 거짓이다. 고대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자료가 다른 시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독 우리만의 어려움은 아니다. 지구상의 모든 역사에서 사료가 가장 부족한 것은 언제나 고대사이다.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없지만 다른 나라의 고대사 연구자들이 우리처럼 사료 부족을 원망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변명과 원망을 할 시간이 있으면 우회할 길을 찾거나 돌과귀를 개척하여야 한다.

일단 한국고대사와 유사한 궤적을 밟은 다른 지역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아시아, 그것도 중국문명의 주변에서 성장하면서 때로는 갈등, 때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킨 정치체들은 매우 귀중한 비교대상이다.

그다음은 문헌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것은 인류학적,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1950~1980년대에는 문화인류학, 사회인류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었다. 원시적인 소규모 공동체가 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여러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의 특징을 서술하는 연구는 인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같은 두툼한 문헌이 새로 발견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고고학 자료는 매년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1년동안 진행되는 유적 발굴조사 건수는 최근 급증하여 매년 1,800~2,000건 정도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지하로부터 출토된 유물의 수는 수만~수십만 점에 달하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이러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고고학의 영역이어서 고대사 연구자가 갑자기 쉽게 다룰 수 있는 친근한 자료는 아니다. 어느 정도의 가공이 가해져야만 고대사 연구자들이 역사 연구에 사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생수가 고갈되어 빈사상태에 빠진 사람 옆에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있고, 그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인력, 장비와 시스템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자명하다. 역사학의 사료, 고고학의 유물을 구분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해수의 담수화,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의 사료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목마른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고고학 자료를 사료로 전환시키는 작업에는 우선적으로 고고학자와 역사학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무덤에서 나온 인골 분석에는 의사와 법의학자, 곤충학자, 동물의 유존체에는 생물학자와 동물고고학자, 무기질 유물에는 화학자가 참여하여 분석을 진행하면 유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유익한 정보를 넘겨준다.

이렇듯 문헌사료의 부족을 핑계로 구태의연한 연구 주제를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비교사적 연구, 고고학 자료의 활용, 자연과학이나 의학과의 협업을 통하여 얼마든지 새로운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3편의 논문은 문헌에만 의지하지 않고 고고학적 자료에 크게 의지하였다. 그 결과 문헌만을 이용하여 진행된 기존 연구성과가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던 미시적이면서 깊숙한 부분까지 도달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한지선의 글은 온조와 비류 형제의 경쟁을 기본 틀로 설정한 문헌연구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경기 서부에 존재하던 복수의 지역 정치체를 선정하여 미시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지역은 문헌사료에 나오는 비류, 미추홀과 관련된 곳이다. 무덤의 구조와 부장품의 변화를 통해 김포 운양동과 인천 연희동에 웅거하였던 두 정치체의 세력 부침, 상호관계, 서울 강남의 백제 중앙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최영은의 글은 근초고왕이 4세기 중엽에 마한을 정복하였는가, 영산강유역 전방후원분에는 왜인이 묻혀 있는가 정도의 논란에 머물러 있던 연구수준을 크게 높였다. 영산강유역권의 정치체는 하나가 아니라 복수였다는 사실, 그들의 발전수준, 주변 정치체와의 관계, 백제 중앙에 대한 지역 수장층의 복속의 정도는 제각각이라는 지극히 정당하면서도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하던 사실을 구체적인 고분 자료로 규명하였다.

권오영의 글은 호남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삼아 이 지역이 백제냐 가야냐 하는 수준의 논쟁을 지양하고 청동기시대 이후 우후죽순처럼 성장한 소

규모 지역 정치체의 변모하는 모습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 그리고자 하였다. 최근 전북 남원의 대형 고분군이 가야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내친김에 장수지역도 가야의 일원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흐름을 비판하면서, 이 지역 정치체를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3편의 연구는 무엇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가? 한마디로 “한날 지방사가 아닌 당당한 지역사”의 자리매김이다.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정치제도사이다. 매년 발표되는 전문 논문의 60% 이상이 정치제도사이다.

그런데 문헌사료, 혹은 중앙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금석문이나 목간을 소재로 연구가 진행되면 수나 양에서는 한 줍도 안 되는 중앙만이 유일한 주체가 되고 나머지 모든 지역과 정치체는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체들은 중앙에 의해 통합되어 지방으로 편제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그려진다. 이러한 주장이 과격하게 들리는 독자는 『삼국사기』신라본기 몇 줄만 읽어보면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주체를 왕과 귀족으로 보는 것이 전근대 역사학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는 않았다. 예를 들어 경주에서 성장한 사로국이라는 작은 정치체가 주변 정치체들을 복속, 통합하면서 신라라는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은 사로국과 유사한 발전 수준의 수많은 정치체들 사이의 복잡한 세력 경쟁의 결과이다. 결코 사로국, 혹은 신라 중앙만이 처음부터 유일하고 독보적인 강자는 아니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잊혀지는 가장 큰 원인은 왕을 유일한 역사 발전의 주인공으로 설정한 기전체 사서인 『삼국사기』의 독법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는 웅변해준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경주에 굴복하여 신라 지방으로 편제되었으나 대구의 다벌국, 경산의 압독국, 부산의 독로국, 창녕의 비사벌도 애초에는 당당한 독립 정치체였음을.

앞으로의 고대사 연구는 고려시대의 문헌이 그리고 있는 삼국시대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단위 정치체들의 진면목을 밝혀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 고대사는 매우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려질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3편의 논문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글들이 한국 고대사학계에 던지는 잔잔한 파문을 기대해 본다.

권오영

